

오하라노 해바라기 밭

9월 중순 무렵, 밝은 노란색에 불타오르는 듯한 주황색, 짙은 빨강색 등 다양한 색을 띤 수천 포기 of 해바라기가 오하라노 해바라기 밭을 가득 메웁니다. 교토 주변의 해바라기는 일반적으로 7~8월에 피기 때문에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인 무렵에 오하라노에 가면 다시 한 번 꽃송이가 큰 해바라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.

커뮤니티 프로젝트

오하라노 해바라기 밭은 오하라노 농가에 의한 프로젝트입니다. 7월 하순에 농가와 이웃 라쿠사이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사,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수천 포기의 모종을 심습니다. 그런 다음 몇 주일에 걸쳐 정기적으로 모종을 돌봅니다. 꽃이 피어 따뜻한 색으로 가득 찰 때까지 밭 전체가 녹색 그대로입니다.

해바라기 즐기기

해바라기 꽃이 피면 이웃한 곳에서는 물론이고 먼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밭을 산책하거나, 사진을 찍거나, 먼 산들의 경치를 바라보는 등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즐깁니다. 개화 기간 중에는 밭에 높이 3m의 전망대가 설치되어 그해의 디자인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 오하라노 해바라기 밭은 가까이에서도,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감상할 수 있으며, 꽃을 촬영하는 이외에도 친구나 가족과의 기념촬영 장소로서도 인기 있는 명소입니다.